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5~12/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2	불교와 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21) 불교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다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7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3	선과 유식(대원불교학술총서22) 깨달음의 구조	다케무라 마키오	운주사	8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4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9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5	하타요가(개정판)	이태영 지음	여래	10	육자진언의수행체계	법장	운주사

1700년 한국비구니승단 역사 '한눈에'



역사 속 한국비구니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지음
전영숙 집필 / 민족사
3만5000원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5년 만에 출간
비구니승가 위상 · 역할 · 존재 등 밝혀
추상적 연구 아닌 역사적 문헌 바탕해
삼국 시대부터 문헌 속 비구니 존재에
대한 자료 찾고 촘촘히 조사 · 서술해



만공 스님과 비구니 제자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불교 비구니승단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서 특유의 역동성과 강한 생명력으로 비구승단과 더불어 한국불교의 또 다른 한 축을 굳건히 지켜왔다. 이와 같은 한국비구니승단의 위상은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비구니승단의 위상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텍스트는 많지 않다. 몇몇 책들에서 한국비구니승단의 역사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것들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들이다.

2019년 발족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사라고 생각하고 5년여의 작업을 통해 한국비구니승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속 한국비구니〉를 출간했다.

〈역사 속 한국비구니〉는 한국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 존재와 역사를 밝힌 책으로, 추상적 고찰이나 연구가 아닌 역사적 문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비구니승단의 모든 자료를 찾아 반영했다. 지금까지 근현대 문중 중심의 책은 더러 있었지만, 〈역사 속 한국비구니〉처럼 이 땅에서 불교가 시작된 삼국시대부터 문헌 속 비구니 스님의 존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고, 촘촘히 조사해 서술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다. 책은 총 여섯 개의 장으로 만들었다.

△제1장 '삼국시대'에서는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 스님의 모친 고도령의 불법에 대한 애정과 노력과 열정을 소개한다. 또한 일본의 첫 여성출가자들을 백제에서 교육시키고 계맥을 전해 준 여성 출가자들, 일본의 여성들이 출가의 마음을 내도록 이끌어 준 고구려의 비구니도 살펴본다.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야와 발해의 여성 불교에 대해서도 간략이 소개한다.

△제2장 '고려시대'에서는 불교가 국가불교가 된 후 정부 주도의 계단 사원과 승과제 운영으로 말미암아 비구니들이 교단 운영에서 입지가 약화된 점을 살펴본다.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비구니 구도자의 진지함, 아낌없는 보시, 다양한 기술적 능력 등을 조명하고, 원나라에서 활약하며 지공 선사와 나옹 선사 등을 도와 한국 선불교의 오늘이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해외 비구니의 활약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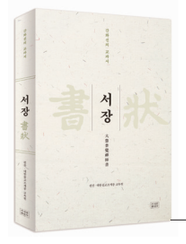
△제3장 '조선시대'에서는 억불숭유의 암흑기를 맞아 비구니와 여성 불자들이 불교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살펴본다. 흔히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조선은 성격상 전기와 후기를 전혀 다른 사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조선시대의 시대 상황은 전후의 차이가 컸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 출신의 여성 출가자와 여성재가자들이 혼신의 힘으로 불교를 지켜내는 데 일조했으며, 후기에는 지방의 비구니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평범한 여성들과 상궁 출신의 여성들도 지극한 신심으로 불교를 지켜내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제4장 '개항기에서 한국전쟁 이전'에서는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불교를 지켜내고 목숨 바쳐 수행에 임한 여러 비구니스님들을 조명한다. 이 시기에 한양에서는 사승방을 중심으로 비구니스님들이 활약했는데, 특히 친일 권승 강대련에 끝까지 저항하며 절을 지켜낸 탑골 보문사의 은영스님을 소개한다. 이 외에 국채보상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한 많은 비구니스님들, 금강산과 수덕사 견성암, 오대산 지장암, 윤필암 등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수행한 비구니선객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교학적 능력을 갖추고 활약한 금룡, 수옥, 혜옥 세 비구니 강백도 비중 있게 다룬다. 또한 수백 년 간 불교 명맥이 끊어졌던 제주도에서 불교를 다시 일으킨 봉려관 스님도 소개한다.

△제5장 '한국전쟁기부터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이전'에서는 바야흐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비구니승가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이 시기에는 조선 500년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전국적으로 폐사지 또는 폐사가 되다시피 한 황폐해진 절들로 나아가 온갖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사찰을 중건하거나 창건한 비구니스님들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으며, 재건한 사찰 곳곳에 비구니선원이 들어섰다. 비구니스님들이 정화운동에 참여하여 불교계에 만연한 성불평등 문제에 직면하면서 단합과 조직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제6장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비구니승가'에서는 우담바라회가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난 후 전국비구니회관이 건립된 과정을 조목조목 서술하고, 비구니회관 건립 후 비구니승가가 어떻게 또 한 번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었는지에 주목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비구니승단 내부의 민주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정혜도량'과 '열린비구니모임'의 활동도 살펴본다.

옛 선사가 전한 간화선 요지



서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찬 / 조계종출판사
2만2000원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대혜 보각(大慧普覺) 스님의 〈서장(書狀)〉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번역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서장〉은 간화선의 창시자 대혜 보각 스님이 송나라 사대부인 참선 수행자들과 '마음 공부', 즉 참선 수행에 대해 주고받은 65통의 편지글을 엮은 책이다. 20년 동안 대혜 선사를 모시고 공부한 제자 혜연(慧然)이 기록하고 제자 황문창(黃文昌)이 중편했다.

주된 내용은 '척사해 현정견(斥邪解現正見)'으로 삿된 견해를 배척하고 바른 견해를 드러내는 데 있다. 조동종(曹洞宗)의 묵조선(默照禪)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임제종의 간화선(看話禪)을 주장하며 화두참구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내용이다.

대혜 선사의 이 가르침이 특히 돋보이는 것은 편지를 통해 선 공부법을 묻는 수행자 개개인의 근기에 따라 그에 맞는 처방을 해준다는 점이다. 간화선은 여러 공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 그렇기에 바른 간화선의 길을 세세하게 짚어주는 대혜 선사의 편지글은 선을 공부하는 지금의 수행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특히 한글세대 학인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간화선의 바른 수행법을 더욱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매끄럽게 새로 번역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사찰 승가대학에서 한문 원문으로 공부해 오던 〈서장〉을 현대에 맞게 번역했다는 점이다. 편지글의 특징을 살려 되도록 일상적인 문체를 사용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대혜 선사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각 분야 집필위원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쳤다. 수백 년 전에 오간 편지글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주고받는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있는 이유다. 기존에 발행한 한문본도 꼼꼼하게 교정하여 나란히 실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한글 번역본 〈서장〉은 간화선의 교과서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친근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 담긴 결실"이라며 "특히 사찰승가대학 스님들이 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원전의 깊은 뜻을 현대어로 옮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글 번역본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들의 든든한 도반이 되고, 불법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간화선 전통을 이어가고 선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책은 앞날개에 QR코드를 넣어, 전자불전 사이트인 CBETA의 신수대장경 서장과 불광대장경 대혜보각선사어록(서장)을 디지털 책으로 볼 수 있게 했다.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은 "대혜 선사가 제자들에게 보낸 간절한 편지들이 이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피어나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됐다"면서 "이 번역서가 인연이 돼 간화선 전통이 더욱 빛나고 활구참선의 깊은 의미가 널리 전파돼, 학인스님들은 물론 한국과 세계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깨닫고 본래면목을 밝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경성 이상연

감 사 권정근(세경씨엔디 회장)
감 사 이장균(창원시청 불자회 부회장)
수석부회장 김선정(정법사 신도회장)
수석부회장 조보현(경남 예총회장)
부 회 장 김정기(원흥사 신도회장)
부 회 장 김종석(성주사 성포회장)
부 회 장 김명희(정인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이원섭(삼학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진효규(관음사 신도회장)
부 회 장 강성희(우곡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유진현(해장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이명은(불곡사 신도회장)
부 회 장 우순기(정암사 신도회장)
부 회 장 김명련(반야사 관음회장)
부 회 장 김일태(통영 국제음악제 대표)
부 회 장 유병현(법무부 범죄예방 창원협의회 회장)
부 회 장 김태종(대신 엔지니어링 대표)
부 회 장 박금숙(경남도립미술관 관장)
부 회 장 설상석(창원대학교 교수)
부 회 장 김 철(경남경찰청 법우회 회장)
부 회 장 진정혜(금강자비회 이사장)
부 회 장 김환태(이충무공선양 군항축제위원회 회장)
부 회 장 박재근(이노비즈협회 회장)
부 회 장 최규식(두동도시개발 대표)



